

광주지역 예비 기술인재 총집결 '자웅 겨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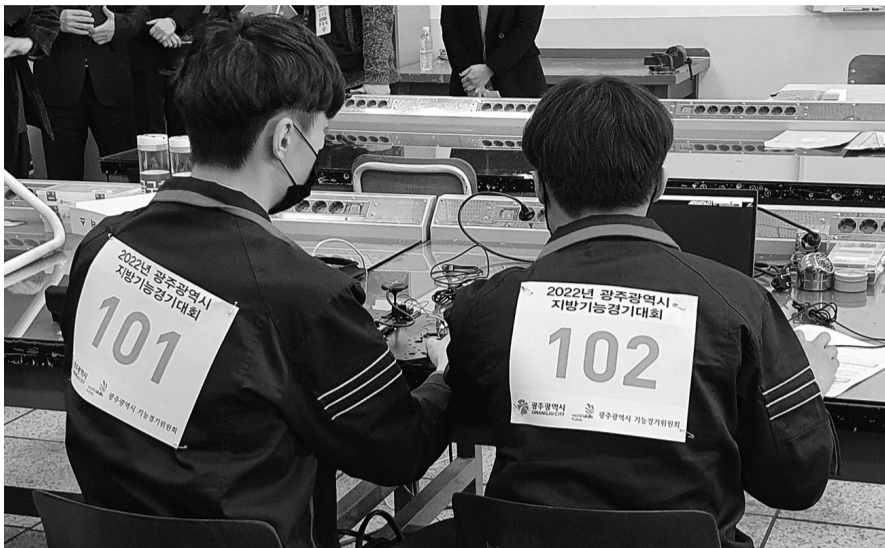
광주기능경기대회 내달 3일 개막 36개 직종 324명 참가·참관 가능 '가공'→'IT 계열' 인기직종 변화 성적 상승세 "전국대회 7위 목표"

지역 '기술인재' 육성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기능경기대회가 내달 3일부터 광주공업고등학교 등 9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 대회는 코로나19로 지난 3년 여간 불가능했던 참관 등이 가능해져 예비 숙련 기술인들의 뜨거운 열정을 직접 관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인기 직종이 과거 금형 등 가공직종에서 최근 IT계열인 메카트로닉스와 전기·산업제어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직종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2023 광주시 기능경기대회'가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광주공고 등 9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개최 직종은 광주의 대표 뿌리산업인 금형과 자동차 차체수리, 메카트로닉스, 통신문분배기술 등 36개 직종이다. 교육



지난해 개최된 광주기능경기대회 산업응드론제어 직종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제공

기관별 참여 인원은 특성화고가 264명으로 81.5%를 차지했고 대학교 3명, 법무직훈 7명, 학원 9명, 산업체 2명, 개인 39명 등 총 324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자웅을 겨룰 예정이다.

참가선수 성별은 남성이 79%, 여성이 21%를 차지했고 연령은 특성화고의 참가율이 높은 만큼 10대가 82%, 20대 4%, 30~40대 6%, 50대 이상 7% 등으로 분

포했다.

더불어 지난 3년여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수단과 코치진 외에는 경기 참관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참관이 가능해지면서 선수들은 가족과 친구 등의 응원 속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을 예정이다. 광주기능경기대회 운영위원회 역시 대회 둘째 날인 내달 8일 관계자들의 참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참가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소정의 상금이 주어지며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시험이 면제된다.

또 오는 10월14일 충남에서 개최되는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광주 선수단의 경우 타지역보다 적은 종목과 참가자 수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전국대회 10위권에서 2021년 8위, 2022년 9위 등 성적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기능경기대회 운영위는 올해는 전국 7위를 목표로 참가 선수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광주의 경우 오는 2025년 16년만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예정지로 선정된 만큼 올해 지방 기능경기대회부터 참가 선수들의 역량 관리 및 기반을 다져 전국 대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특성화고 1학년생의 경우 전국대회가 열리는 2025년 3학년으로 진학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기능경기대회를 넘어 전국대회를 목표로 훈련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들은 오는 2024년 10월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되는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도 출전하게 된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우 지난 2021년과 2022년 전국대회 1, 2위 입상자 중 평가전을 거쳐 선발된 국가대표가 출전하게 되는데, 광주 선수단에서도 메카트로닉스 직종에 선수 2명이 입상해 있어 평가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서혁 광주기능경기대회 운영위원장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지역 기능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발휘해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에도 앞장서는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나 기능인들에게는 가장 큰 기회이자 축제"라며 "광주지역의 경우 과거 금형, 금속 등 가공분야 직종에서 메카트로닉스 등 IT계열로 선호 직종이 변화하고 있는데 관련 직종에서 지난해 특성화고 2학년 학생들이 우수한 실력으로 다수 출전했던 만큼 그 기세를 이어 올해 3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주)도도인터내셔널 '패밀리 페스티벌' 성료

대전서 전국 파트너 참석

광주를 기반으로 한 코스메티컬 기업인 (주)도도인터내셔널은 지난 24일 4번째 '패밀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 BMK 컨벤션 하모니볼룸홀에서 진행된 행사는 전국 각지의 파트너가 참석한 가운데 총 3부에 걸쳐 진행됐다.

행사 1부에서는 회사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새롭게 탄생한 신규 본부장들과 김완우, 김지혜 총괄본부장에 대한 인증식이 진행됐다. 또한 중국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시작한 글로벌본부의 출범이 있었다.

이후 행사 2부에서는 신규 파트너들을 위해 도도인터내셔널의 메인 브랜드 셀이

야, 셀포스 등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됐고, 곧 출시를 앞둔 신제품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3부에서는 초대가수 '빅맨'이 화려한 퍼포먼스로 행사에 열기를 더했다.

이번에 새로 진급한 김지혜 총괄본부장은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며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파트너들을 독려했고, 이후 황정숙 대표는 '된다! 된다! YES!!, 한다! 한다! YES!!, 도도! 도도! 화이팅!!'이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주)도도인터내셔널은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몸과 피부에 이로운 제품을 통해 고객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한다'는 이념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권범 기자



(주)도도인터내셔널은 지난 24일 대전 BMK 컨벤션 하모니볼룸홀에서 4번째 '패밀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도도인터내셔널 제공

"지역 인재, 세계 일류 디자이너 양성"

코리아디자인멤버십 회원 모집 호남·제주권 대학생 12명 선발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코리아디자인멤버십 플러스(KDM+) 4기 회원을 신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세계 일류디자이너 양성 사업'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KDM+는 우수대학생을 선발, 세계 일류 수준의 실무 디자이너로 육성하기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올해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디자인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KDM+ 회원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KDM+ 회원은 2년간 디자인 창작스튜디오, 디자인 연구, 국내·외 기업과 연계한 산·학 프로젝트, 시제품 제작, 전문가 멘토링, 국제 디자인 어워드(IDEA, IF, Red Dot 등) 출품, 전시 참

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모집 대상은 2년간 교육참여 및 멤버십 활동이 가능한,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소재 대학의 디자인 관련 전공 2학년 이상 학생이다. 참여 희망자는 내달 3일까지 광주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gd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 제출(https://forms.gle/qcnFrJikaN5ksDkD7)하면 된다.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지역의 역량있는 대학생들이 현장 실무역량을 갖춰 세계 일류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난해 코리아디자인멤버십 프로그램으로 해외 워크숍, 산·학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및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해 지식재산권 출원 등 14건, Red·Dot 등 해외 공모전 수상 8건 등 성과를 거뒀다. 곽지혜 기자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 지원

광주전남중기청, 참여기업 모집 생산성 제고·신규사업 창출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혁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 제고,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사업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ICT 활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에서의 사업전환(온라인 헬스·의료·교육 등) △공공문제 해결 △업무자동화나 물류·고객관리 효율화 등 대내외 업무 혁신 등을 위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원을 통해 시간 단축이나 비용 절감 등 업무효율성이 향상됐으며, 매출 및 고객 증가와 불량률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로 수기방식의 재고관리를 하고 있던 한 기업의 경우 물류·배송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해 자동주문 수집 후 재고 유무를 파악하고, 근거리 물류창고에 배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효율성이 향상되고 오출고율이 0.58%에서 0.01%로 감소했다.

올해는 신규 150개사(최대 6000만원), 고도화 15개사(최대 1억원) 등 총 165개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고도화 과제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중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 참여 전 기업들이 디지털 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 진단·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달부터 내달 20일까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smart@mainbiz.or.kr),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korsca_svc@korsca.kr), 여성기업 종합 지원 센터(smartservice119@wbiz.or.kr) 등 수행기관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 진단·컨설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자체 개발·구축 역량 보유기업은 단독참여 가능)해 내달 26일까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b-service.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곽지혜 기자